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예비유아교사를 중심으로

하정희, 이종만
경인여자 대학교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Level and Teaching Efficacy : Focused on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

Jeong-Hee Ha, Jong-Man Lee
Kyoung-In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경제적 수준과 자아존중감 및 교수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인천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유아교육과 학생 457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적률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변수들 간에 모두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과 개인적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 주요변수들 간에 모두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과 개인적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과 일반적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교수효능감에 대한 경제적 수준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경제적 수준, 교수효능감,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예비유아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level, self-esteem and teaching efficacy first, and then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level and teaching effica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57 students who attend two collages in Incheon and all of them were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SPSS Window program.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showed the there were correlation among economic level, self-esteem and teaching efficacy. Also there wer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level and personal teaching efficacy. As a whol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e teaching efficacy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 were more influenced by self-esteem than by economic level.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 were discussed with the necessity of curriculum development to improve the student's self-esteem.

Key Words : Economic Level, Teaching Efficacy, Self-esteem, The Mediating Effects,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

Received 28 November 2016, Revised 1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Jong-Man Lee
Email: leeman@kiw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유아교사는 유아의 적응 및 교우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요인이며 전인적 발달 및 학습을 자극하는 등 유아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1]으로 교사의 판단과 의사결정은 매우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2]. 특히 무한경쟁시대에 교육의 수월성과 인성교육이 동시에 중요시되는 교육현실에서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3].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예비유아교사 단계의 교육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유아교사로서의 준비는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육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2]. 예비유아교사는 향후 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능, 성향, 태도 등을 교사양성교육 단계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4].

교육환경의 변화와 함께 학업성취를 포함하여 교육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 변인으로 최근 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 교수효능감은 교사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하는 사고과정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사가 교육장면에서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6]으로 학습자의 학습에 교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사적 신념[7]을 말한다.

교사의 교수효능감 수준은 교수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교수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업성취, 동기 수준, 학습전략 등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져옴으로써 교직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8,9]. 교사의 교수방법이나 기술, 전략 등을 습득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교사의 신념체계로서 교수효능감은 가르치는 상황에서 기술이든 노력과 장애에 처했을 때 보여주는 인내수준에 영향을 주며[10] 보다 목적지향적이고 혁신적으로 교육실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8,11].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돌아보고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배우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되어 교사로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대한 믿음이 개선됨으로써[12] 교수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교수효능감에는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개인적 교수효능감이 있다. 교수-학습관계에 대한 좀 더 일반화된 신념으로서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신념이 일반적 교수효능감이다. 개인적 교수효능감은 교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한다[13]. 즉 교사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으로서 ‘자신의 효능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반면, 일반적 교수효능감은 학생의 학습과 같은 ‘결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8,14].

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교사교육의 정도, 교직경력, 직무만족도, 개인차 및 인성 등과 같은 내적 변인[12,15,16,17]과 학교조직의 구조나 특성, 역할담당과 갈등,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의 환경적 변인[6,16,18]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내적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환경적인 변인과 관련한 연구로는 교육 프로그램 훈련에 의한 효과 연구[19,20]와 환경적 변인에 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21]가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비교해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연구는 환경적 변인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선행연구 중, 환경적 변인에 의한 차이 연구는 단 한편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21]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준’은 학습자로 하여금 다른 교육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정의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임[22,23]을 간과할 수 없다. 교육이 계층이동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사회적 상황이므로 예비유아교사의 경제적 수준과 그 영향력은 더욱 중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는 연구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어 관련된 실증연구를 접하기 힘든 상황[24]이므로 경제적 변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수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에 기초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은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되며 이것을 그대로 교직에 적용한 것이 교수효능감[10]이다. 즉 교수효능감은 교직이라는 맥락-특수적인 형태의 자기효능감으로 설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효능감과 경제적 수준과의 상관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25,26,27,28]이며 이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환경적 변인,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오혜진[26]은 부모의 직업수준과 소득수준이 고등학교 재학중인 여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예측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경제적 수준과 자기효능감 간의 정적 상관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 다른 고등학생 대상 연구[28]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이는 학습자의 학습 몰입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9]를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수준의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음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남성에 비하여 여성학습자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더 취약[22]하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사로서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서 경제적 수준을 주목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자신에 대한 평가적 측면[30]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감 혹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믿음 등으로 정의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아실현 및 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16,31] 전공을 불문하고 진로결정과 준비를 위한 실천적 노력수준을 높이는 기본바탕이 된다[32]. 여러 연구[15,16,33,34,35,36]에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의 자아존중감은 교수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교사에게 자아존중감은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서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심리적 특성이다. 자아존중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5]. 또한, 자아존중감은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성공의 경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높인다[37,38]. 이와 유사하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할 때,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은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처한 경제적 수준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된다. 자아존중감 발달에서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기 이후 연령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39]. 청소년이 지각한 경제수준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40]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이후 연령에 대한 연구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 특히,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41]는 경제적 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부분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행복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경제적 수준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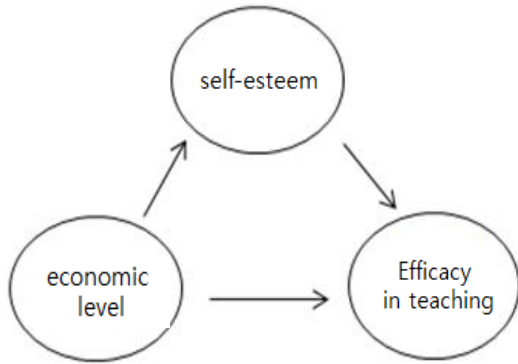
지금까지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은 교수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수준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경제적 수준이나 자아존중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더욱이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수효능감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종합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교수효능감은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므로 예비유아교사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예비교사가 가지는 신념, 태도나 인식 등의 내적 요인들은 그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의 역할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42] 그들의 내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연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대학에서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과 지도에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경제적 수준과 자아존중감 및 교수효능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효과는 어떠한가?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선정된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relation between economic level, self-esteem and efficacy in teaching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 두 곳의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참가한 학생은 총 487명이었다. 그 중 회수된 설문지가 469부(97%)였으며, 이 중에 불성실한 답변, 복수 응답, 답변이 누락되는 등 분석할 수 없는 설문지 12부를 제외하고 총 457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지 조사기간은 2016년 5월 23일부터 2016년 6월 4일까지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variable	section	frequency(%)	total
grade	1grade	223(48.8)	457 (100)
	2grade	115(25.2)	
	3grade	119(26.0)	
occupational cluster of father	specialized job	120(26.3)	457 (100)
	office job	88(19.3)	
	self-proprietor	107(23.4)	
	homemaker	1(0.2)	
	blue color job and transport	53(11.6)	
	student	0(0)	
	temporary employee	2(0.4)	
	others	64(14.0)	

occupational cluster of mother	specialized job	85(18.6)	457 (100)
	office job	46(10.1)	
	self-proprietor	62(13.6)	
	sales and service industrial employees	57(12.5)	
	homemaker	145(31.7)	
	blue color job and transport	26(5.7)	
	student	3(0.7)	
	temporary employee	2(0.4)	
economic level	others	31(6.8)	457 (100)
	less 1 million won	9(2.0)	
	over 1 million won less 2 million won	84(18.4)	
	over 2 million won less 3 million won	295(64.6)	
	over 3 million won less 4 million won	66(14.4)	
father's level of education	over 4 million won	3(0.7)	457 (100)
	elementary graduates	11(2.4)	
	middle school graduates	20(4.4)	
	high school graduates	242(53.0)	
	college graduates	48(10.5)	
	university graduates	116(25.4)	
mother's level of education	over graduate school	20(4.4)	457 (100)
	elementary graduates	6(1.3)	
	middle school graduates	21(4.6)	
	high school graduates	290(63.5)	
	college graduates	55(12.0)	
	university graduates	73(16.0)	
over graduate school	12(2.6)		

2.2 연구도구

2.2.1 자아존중감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검사는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조영선[4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이다. 채점은 5점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완전히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문항 중 2,5,6,8,9번은 역채점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계수는 .80이다.

2.2.2 교수효능감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Enochos와 Riggs가 개발한 도구를 김미경이 보완한 후 장미정[44]이 재사용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교수효능감 측정도구는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개인적 교수효능감 2개의 범주로 구성되어있다. 채점은 5점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완전히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교수효능감의 경우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계수는 .81이며 개인적 교수효능감의 경우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계수는 .84이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과 같다. 역채점은 *로 표시하였다.

<Table 2> subfactor efficacy in teaching

sub factor	content	N	question number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Expectations for the results such as student's achievement	12	1,2,3*,4,5*,6,7*,8,9,10,11*,12*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Expectations for the act of teachers teaching	13	13,14*,15,16*,17*,18,19*,20,21*,22*,23*,24,25*
total		25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도구의 문항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신뢰도를 구하였다. 경제상황과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Baron과 Kenny[45]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가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 이전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및 Durbin-Watson 계수를 검토하여 회귀분석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경제적 수준, 자아존중감 및 교수효능감의 상관관계

경제적 수준, 자아존중감 및 교수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듯이 첫째, 경제적 수준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17, p<.001$).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r=.19, p<.001$). 하위영역별로 보면 일반적 교수효능감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개인적 교수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23, p<.001$).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r=.418, p<.001$). 하위영역을 보면 일반적 교수효능감($r=.25, p<.001$)과 개인적 교수효능감($r=.44,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다고 하겠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of economic level, self-esteem and efficacy in teaching

section	economic level	self-esteem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economic level	1			
self-esteem	.17***	1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07	.25***	1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23***	.44***	.46***	1

* $p<.05$, ** $p<.01$ *** $p<.001$

3.2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효과

3.2.1 경제적 수준과 일반적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효과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Baron과 Kenny[45]의 모델에 근거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제상황, 자아존중감 및 교수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다음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의 <Table 4>는 경제상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4>에서 보듯이 경제적 수준은 일반적 교수효능감에는 영향($\beta=.03, p>.05$)을 미치지 않고 자아존중감만 영향($\beta=.1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예비 유아 유아교사들의 일반적 교수효능감을 높여주는데 경제적 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in relation between economic level and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step	subordination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F	R ²
1	self-esteem	economic level	.17***	13.38***	.03
2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economic level	.07	.12	.01
3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economic level	.03	15.55***	.06
		self-esteem	.24***		

*p<.05, **p<.01 ***p<.001

<Table 5> effect calculation of self-esteem in relation between economic level and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section	economic level	self-esteem
self-esteem	0.17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0.04	0.25

3.2.2 경제적 수준과 개인적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효과

Baron과 Kenny[45]의 3단계 절차에 따라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 중 개인적 교수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은 경제상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1단계와 2단계에서 경제적 수준은 자아존중감($\beta = .17, p < .001$)과 개인적 효능감($\beta = .23, p < .001$)에 3%와 6%의 설명력을 보여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 경제적 수준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경제 수준과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교수효능감에서 22%의 설명력을 보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개인적 교수효능감에 직접효과도 미치지 않지만 경제적 수준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함으로써 개인적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효과계수

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개인적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전체영향력은 0.31로 자아존중감(0.4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의 경제적 수준이 개인적 교수효능감에 직접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을 거쳐 간접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경제적 수준보다 개인적 교수효능감을 높이는데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in relation between economic level and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step	subordination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F	R ²
1	self-esteem	economic level	.17***	13.38***	.03
2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economic level	.23***	27.98***	.06
3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economic level	.17***	67.63***	.22
		self-esteem	.41***		

*p<.05, **p<.01 ***p<.001

<Table 7> effect calculation of self-esteem in relation between economic level and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section	economic level	self-esteem
self-esteem	0.17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0.31	0.44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경제적 수준과 자아존중감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에서도 정적 상관, 자아존중감과 교수효능감에서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관계를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수준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40,40,46]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도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29]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는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보면 일반적 교수효능감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개인적 교수효능감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유아교육 전공 대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 간에는 상관이 없다고 밝힌 연구[21]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결과이다. 박은미의 연구[21]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한 경험이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연구대상자의 연령별, 학습자별, 지위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점[47]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박은미의 연구[21] 이후 10여년 지난 시점에서 두 배이상 많은 연구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더 검증의 여지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경제적 수준과 자기효능감이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27]와는 일치하고 있다. Bandura의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행동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교사, 진로, 성취 등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 파생된 개념이 교수효능감이다. 최근 이러한 효능감의 정의를 밝히는 연구[9]에서는 개인적인 효능감과 교수효능감 사이에 차이를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효능감 간 내향적/ 외향적 특성으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전술한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예비유아교사의 보다 내향적인 측면의 자기효능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교수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고 논의할 수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15,16,33,34,35,37]이 있다. 그런데, 전술한 연구 중 일부[15,33,34,35]는 자아존중감이 교수효능감의 하위변인인 개인적 교수효능감과 일반적 교수효능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는 반면,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적 교수효능감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예비교사의 개인적 교

수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밝힌 Huang과 Liu의 연구[37]결과와 일치한다. Huang과 Liu의 연구[37]에서는 예비교사의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무상관이라는 이전 연구결과에 따라 일반적 교수효능감을 변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기평가 혹은 자아수용에 해당하는 자아개념이라는 정의에 근거해서 보면, 예비유아교사의 자아개념과 교수효능감 간 관계를 밝힌 연구[17]의 결과와 일치한다. 김민정의 연구[17]에서는 자아개념을 5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수효능감 간 관계를 검증한 결과, '자기수용'요인과 '유아관'영역은 개인적 교수효능감과 상관이 있으며 그 외 '일상적 자아' '타인수용' '직업·신분적 자아'영역은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기대보다는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효능기대에 더 집중[8]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수효능감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은 개인적 교수효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아울러 예비유아교사의 개인적 교수효능감을 높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경제적 수준이 일반적 교수효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교수효능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교수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제적 수준은 일반적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아존중감이 일반적 교수효능감 향상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지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29]에서 자기효능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변인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자아존중감임을 밝힌 결과

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및 우울과 부적 상관의 변인[48]으로서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윤리의식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예측요인[49,50]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설문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경제적 수준과 자아존중감,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교수효능감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결과를 통해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경제적 수준이 그들의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전공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경제적 수준과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대단히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각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는 지도방향을 설정하고 표면적·잠재적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면 예비유아교사에 대한 상담 강화, 의사소통 기법 훈련 등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투입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적인 학과활동 강화 등 교육과정 개발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비유아교사들에 대한 자아존중감 강화 활동에의 모색은 교수효능감 등 그들의 교육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2 제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대학의 학생으로 연구대

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체 예비유아교사에 대한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수준 변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차후에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객관적인 비교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구분은 하지 않았다. 학년에 따라 그들의 심리적 특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전공 지식과 훈련의 축적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교수효능감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교수효능감 등의 변인들의 관계를 학년별로 비교하여 검증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자아존중감 강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Jung-Yoon, Kwon,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labor, and working atress of child-ca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0, No.6, pp.269-290, 2010.
- [2] Yoon-Se Hwang, Young-Sook Jang, Mi-sook Choi, "An effect of teaching pratices and organizational climate in kindergarten on the self-concept, role performance and teaching efficacy",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38, No.4, pp.195-218, 2004.
- [3] Seung-Yoon Yoo, "A study on the use of visual narrative materials for developing upright character in a preservice teacher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Vol.99, pp.263-298, 2014.
- [4] Soon-Mee Kang, Kyung-Hoon Lew, "Correlations among self-concept, creative personality and teacher-efficacy of college stud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Journal of the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12, No.1, pp.87-95, 2014.
- [5] Suk-Soon Lee, "A study on the teacher's efficacy and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f early childhood

-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re Administration*, Vol.13, No.4, pp.267-286, 2009.
- [6] Kyung-Chul Kim, In-Sook Choi, Jeong-Sun Hong, “Relationships among professional learning environments and teacher efficacy belief in child care center”,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2, No.4, pp.115-135, 2007.
- [7] Ashton. P. T.,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35, pp.28-32, 1984.
- [8] Woolfolk, E., & Hoy, K., “Prospectiv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beliefs about contr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2, No.1, pp.81-91, 1990.
- [9] Guskey, R., & Passaro, D., “Teacher efficacy: A study of construct dimensio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31, No.3, pp.627-643, 1984.
- [10] Gibson, S., & Dembo, M. H., “Teachers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rarch*, Vol.76, No.4, pp.569-598, 1984.
- [11] Anderson, R., Greene, M., & Loewen, P., “Relationships among teachers and students’ thinking skill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34, No.2, pp.148-165, 1988.
- [12] San-Yeo Kim, “The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ve Competence,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Kyonggi University Education Graduate School*. 2011.
- [13] Gibson, S.,& Dembo, M. H., “Teachers efficacy: An important factor in school improvement”. *The elementary school School Journal*, Vol.86, No.2, pp.173-184, 1985.
- [14] Seong-Taek Lim, *Teacher Efficacy*. Seoul : Kanghyun publisher. 2011.
- [15] Hyun-Kyunh Lee, Myung-Ja Nam, “The field practice experiences, The Self-Esteem and the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al Research & Review*, Vol.13 No.4, pp.119-135, 2009.
- [16] Jae-Suk Lee, Hyong-Sil Lee, “Teacher efficacy of home economics teacher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21 No.1, pp.21-34, 2009.
- [17] Min-Jeong Kim, “Relation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and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self-concept and teaching-efficacy”.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7.
- [18] Ah-Young kim, Jung-Eun Cha,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eacher-efficacy and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7, No.2, pp.25-43, 2003.
- [19] Sun Kim, “Inquiry-based math program development and its effects on instructional abilities of pre-service teach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niversity*, 2013.
- [20] Kyung-Sim Yim, “An effects of student-teaching in kindergarten through reflective journal writing on pre-service teacher’s educational belief and teacher efficacy”, *Graduate School of Chonnam University*, 2009.
- [21] Eun-Mi Park, “A study on the self-efficacy and teaching-efficacy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9 No.4, pp.103-124, 2005.
- [22] Pyeong-Hwa Kim,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class and parents’ involvement in education and high school students’ motivation in academic achievement”.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1.
- [23] Davis-Kean, P. E.,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in child achievement: The in 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19, No.2, pp.294~304, 2005.
- [24] Junh-Seb Lee, “A Path Analysis of Parent’s Socioeconomic Position Influencing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No. 26, pp.159-191, 2009.
- [25] Dong-Sim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conomic stress, school belonging, career

-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and school satisfaction in specialized vocation high school”,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4.
- [26] Hye-Jin Oh,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predicting adolescent girl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efficacy: Comparison between alpha girls’group and general girls’group”,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1.
- [27] Eun-Duk You, “Influence of Study-motivation by Family Strengths and Self-efficacy from the Vies Point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2010.
- [28] Ja-Yeon Lee, “The mediating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learning flow,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adolescent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29] Woo-Seok Seo,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Maturity, SES, Self-esteem, Self-efficacy of the College Student”.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28 No.4, pp.149-171, 2015.
- [30] The Korean Elementary Counselor Education Association, School Violence Preventing and Measures, Seoul : Hakji publisher. 2013.
- [31] Sun-Sook Hwang,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nurses’ experience of violence and their self-esteem”, Graduate School of Kangwon University, 2008.
- [32] In-Ho Jung, Byung-Chul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3, No.3, pp.13-19, 2012 .
- [33] Seong-Hye Park, “Relationships Among Aptitude for Teaching Profession, Self-Esteem, and Teaching Efficacy in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al Research & Review, Vol.19 No.2, pp.211-242, 2015.
- [34] Jin-Hee Le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Thinking Style, Self-esteem, Teacher Efficacy”.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10, pp.755-773, 2015.
- [35] Kye-Ok Hong, Hye-Won Kang, “Relation Betwee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Decision Making, Self-esteem, and Their Teaching-efficacy”.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Vol.14, pp.5-17, 2011.
- [36] James, M. P., “The relationship of creativity and adaptability to teaching efficacy”. Master’s disserta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2012.
- [37] Huang, X., Liu, M., & Shiomi, K.,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fficacy, teachers self-esteem and orientations to seeking help”. Social behavior personality, Vol.35, No.5, pp.707-716, 2007.
- [38] Woodruff, S. L., & Cashman, J. F., “Task, domain, and general efficacy: A re-examination of the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Vol.72, pp.423-432.
- [39] Rosenberg, M. & Pearlin, L. I., “Social clas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and adul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4, No.1, pp.53-77, 1978.
- [40] Woon-Kyung Lee, “Correlates of adolescent achievement motive: socioeconomic atatus, maternal expectation and emotional support, and adolescent self-esteem”,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5.
- [41] Eun-ui Jeo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Married Women’s Happiness :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nnam University, 2006.
- [42] Jin-Hee Park, Won-Kyung Son, “A study on the effects of pre-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themselves on children’s personality education”,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14 No.1, pp.173-193.
- [43] Young-sun Jo,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Preoccupation with Money : Mediation Effect of Responsiveness to Support”.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6.
- [44] Mi-Jeong Jang, “The Influence of Kindergarten quality,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Efficacy on

Children's Cognitive, Linguistic,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1.

- [45]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3-1182, 1986.
- [46] Joo-Kyeong Eo, "Influencing variables via path analysis on children's self-esteem of low-income familie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998.
- [47] Kwang-Ok Yun, "Factors predicting self-efficacy and Korean language achievement: With specific focus on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 [48] Ji won Lee, Kyung-hee Kang,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5, No.4, pp.69-74, 2014.
- [49] Sook-Young Kim, Eun-Young Jeon, Kwuy-Bun Kim, Yeon-Ok Suh, The "Influencing Factors on Self-actualization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14, No.4, 2002
- [50] So-Yeon Park, Kyung-Young Park, "Correlation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and Self-esteem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6, No.6, pp.271-277, 2015.

하 정 희(Ha, Jeong Hee)



- 1989년 3월 ~ 1993년 2월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문학사
- 1993년 3월 ~ 1995년 2월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문학석사
- 1995년 3월 ~ 1998년 2월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00년 3월 ~ 2017년 현재 :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유아예술교육, 교사교육
 • E-Mail : jesischa@kiwu.ac.kr

이 중 만(Lee, Jong Man)



- 1976년 3월 ~ 1980년 2월 :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 교육학사
- 1980년 3월 ~ 1984년 8월 :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 교육학석사
- 1988년 3월 ~ 1991년 2월 :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 교육학박사
- 2000년 3월 ~ 2017년 현재 :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교육, 평생교육
 • E-Mail : leeman@kiwu.ac.kr